

우리하나되어

제 15권 제 10호

헬로쉽 교회 월보

2007년 10월 7일

커버넌트 빌리지 오픈하우스

지난 17년간 헬로쉽교회는 나그네 같은 미국 이민자들의 삶을 서로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왔다. 비록 긴 세월은 아니지만, 그 동안 하나님께서 헬로쉽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는 참으로 많았다. 매 예배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셨으며, 영적인 회복과 더불어 세상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셨다. 짧은 이민역사이지만 많은 교포들이 미국 주

류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으며, 비교적 여유로운 환경 속에서 살게 되었다.

헬로쉽교회 또한 34 에이커에 달하는 땅을 구입하였고, 지난 2001년 2월 메릴랜드 캠퍼스 건축을 끝낸 뒤 입당하였다. 좋은 공간 위에 좋은 교역자들을 모시고 1세와 2세를 예수님의 제자들로 키우는데 노력하였으며,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기도 하였다.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돕



커버넌트 빌리지

고자 나뉘대로 뛰었으며, 때로 멀리서 들려오는 자연 재해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적지만 최선을 다해 경제적인 도움도 아끼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민 사회와 교회가 자칫하면 자신들만을 위해 산다는 이기적인 인상을 주류 사회에 줄 수 있는 점을 잊지 않았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을 돌보고, 먼 지역(땅끝)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동안 가장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주변 지역사회(온 유대)입니다”라고 김원기 목사는 2년 전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헬로쉽교회가 좀 더 의도적으로 주변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커버넌트 크리스천 스쿨’이다. 이웃의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지 4년 만에 100여명의 학생들을 둔 학교로 성장하였다.


두 번째로는 주위에 있는 시니어를 섬기는 사역인 ‘헬로쉽 시니어센터’이다. 그런데 이 사역을 통해 가지게 된 시니어를 향한 관심은 62세 이상의 시니어를 위한 ‘커버넌트 빌리지’를 낳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소원을 주셨던 하나님은



“이를 위해 필요한 일정들, 즉 땅의 용도 변경, 주민들의 동의, 주정부와 카운티로부터 자금 보조, 좋은 건축회사, 카운티 행정 당국과의 좋은 관계 유지, 아파트 개발 회사와 운영 회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들을 손수 도와주셨다”고 김원기 목사는 밝혔다. 커버넌트 빌리지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지난 9월 23일 헬로쉽교회 교인들을 위해 2부 예배 후인 12시 30분에

오픈하우스를 가졌다. 여러 교우들이 커버넌트 빌리지를 직접 방문하여 시설들을 눈으로 확인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총 89채가 들어서며, 도서관, 병원, 미용실, 체조교실 등과 같은 공공시설들도 함께 자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김원기 목사는 커버넌트 빌리지에 대한 비전을 나누었다. 앞으로 20년 동안 융자한 돈을 다 갚은 뒤에는 커버넌트 빌리지를 은퇴하는 선교사들에게 은퇴 아파트로 제공하고 싶다는 것이다. 많은 선교단체들이 은퇴하는 선교사들에 대한 거주 마련 대책이 거의 없는 현 상황에 비추어본다면, 비록 2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 할지라도, 한 지역 교회가 소망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이다. 

<오장석>



시무장로에서 사역장로로

헬로쉽교회의 행정 가운데 타 교회와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장로의 임기제도이다. 한국의 교회 가운데 선진 감각을 익힌 교회가 임기제로 운영하고, 이민교회 가운데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인데 헬로쉽교회는 과감히 실천하였고 아름답게 진행되었다. 첫 임기 6년을 마치고 시무장로에서 사역장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5명의 장로들과 계속 남아 중직을 수행할 당회원들이 9월 노동절을 맞아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애기와 앞으로의 소망을 나누었다.

현역장로에서 은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봉 장로



당회가 결성되기 전, 상임위원시절부터 사역을 하였습니다. 당회원으로 지내며 늘 느끼는 것은 모든 분들이 화합된 분위기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의견은 다르고 생각이 달랐지만, 그래도

흐르는 시냇물처럼 시원하고 신선한 모임이었습니다. 갈등을 풀어주는 생수처럼 남아 계신 분들이 계속 수고해주시고 내 주장만을 고집하기보다는 화합된 분위기에서 일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양호 장로



헬로쉽교회에 처음 와서 정착하기 힘든 첫 1년을 지내고 보면서 도전과 기회의 시기로 삼으며 야성적인 분위기에서 평신도 리더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안수집사 시절을 지나 상임위원으로 지내며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낸 것이 아님에도 과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6년 간의 당회원 사역을 멋지게 보내며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힘든 분위기 없이 무난히 지내게 됨을 깊이 감사합니다. 이민교회에서 흔히 보일 수 있는 잡음이나 큰소리 없이, 힘든 일 없이 지냈습니다. 담임목사님의 리더십이나 비전을 이끄는 모습을 보며 배우고 또 배우는 데로 사회생활에 적용하며 많이 익힌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져 하실 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당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진행하는 무게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대영 장로



헬로쉽교회에서 16년의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당회가 없던 초창기 시절에 처음 당회원이 되어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신도 사역인 오이코스를 하면서 회중의 의견을 감안하여 당회와 교회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가 목사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세대가 되기를,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를 개척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성준 장로



16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이 기적입니다. 인생의 황금기인 30대부터 40대의 시절을 교회에서 함께 지내며 많이 배웠습니다. 버지

니아 캠퍼스를 개척하면서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벅차지만 기쁜 일이었습니다. 당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낸 시간이 때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대부분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여서 해결 방안을 성숙하게 이끌어갔던 순간마다 더 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나가는 듯하여 부담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하는 것과 때로는 본의 아니게 교만해지려 할 때 하나님의 겸손을 배우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남은 재정을 모두 해결하시기를 바라고 리더십을 배우는 귀한 시기가 되세요.

정평희 장로



손녀 Eliana와 함께

지난 6년간 시무장로로 사역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목사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며 교회 일을 의논하고,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그동안 교회를 떠나고 또 새로 오시고 하였지만 한결같이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뭉쳐서 사역하였던 것이 체계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제가 담당하고 있는 트레스 디아스에서도 운영위원들이 가족같이 돌보아주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로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역장로로 일선에서 물러나는데 앞으로는 뒤에서 기도로 섬기고 또 오이코스 교구 사역에 힘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기 목사



이민자의 갈등이나 문제들이 성령 안에 거하면 쉬울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철학과 리더십에 속한 분들이 화목하고 건강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민 교회의 표상이 아닌가 하는 것에 목회 비중을 둡니다. 든든한 당회의 영향과 뒷받침이 있기에 웬만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큰 의견 충돌없이 지낼 수 있었던 시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은 나가신 당회원분들

에 대한 추억과 그리운 시간이 있더라도 포부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 여기고 마음 통하는 당회원들, 이해하며 지낸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자녀들이 성장하는 사춘기 시기였음에도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상대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안다면 좀 더 깊이 있게 배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미련이 남습니다. 젊은 시절에 어른 노릇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낸 웰로쉽교회에서의 시간이 귀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햇살이 뜨거운 날임에도 프레데릭의 계곡물은 너무 차가워서 발을 오래 담그고 있을 수 없었다. 마르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차가운 이성과 내일이면 다시 떠오르는 해처럼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어느 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첫 임기를 무난히 그리고 멋있게 마무리하신 당회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른 부분에서 사역을 하게 될 여러분의 앞날에 창대한 발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

<이연일>

초등부 Back to School (9월 23일)







휠로쉽교회 창립 기념 예배

왼쪽: 메릴랜드 캠퍼스 (17주년)

오른쪽: 버지니아 캠퍼스 (5주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Lannie Kim

헬로쉽교회에 다닌 지 4년이 되었습니다. 헬로쉽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1년 뒤, 영어 대학부 모임인 임팩트에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저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이해하면서 저와 하나님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처음 오이코스를 시작할 때, 어떻게 오이코스를 최고로 이끌 수 있는가는 말할 것도 없고, 오이코스가 무엇인지조차 몰랐었습니다. 한 번도 오이코스의 구성원인 적도 없었고, 오이코스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잠언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지혜를 구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제가 오이코스 리더로 섬길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오이코스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회의를 할 때, 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사역에 더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신입생 시절의 저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옆에 같이 있어주는 자매들이나 저를 격려해주는 언니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많이 슬프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후회를 사오실 수 있는 것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경험과 고통을 사용하셔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기 바라셨습니다.

오이코스가 가르치는 자리라는 것은 알았지만, 저는 그 곳이 관계를 맺는 자리라고 더 생각했습니다. 오이코스는 형제, 자매들이 자신의 삶을 나누는

I have been attending NCFC for 4 years and began serving in the Impact ministry after 1 year. Through serving, God has really blessed me in many ways and I grew into a more intimate relationship with Him, while understanding His heart and love for His people.

When I first began leading small groups, I had no idea what small groups even were, let alone

how to best lead one. I had never been a part of one and didn't really know what was supposed to happen, but God really taught me to not to lean my understanding, but trust in Him and ask Him for wisdom, as it is written in Proverbs Chapter 3. Also, I could not explain why I had such a heart to serve in this way. When leaders began discussing the imple-

mentation of small group, I knew I wanted to be more involved for some reason. I looked back at my own experience during my freshman year of college and had a lot of sadness and regret that I did not have a group of sisters to be there for me or an older sister figure to encourage me. I realized that He wanted to turn that regret into something He could use; He wanted to use my experience and struggles to bless others.

When I thought about small group, I knew that it was a place for teaching, but I felt more convicted that it was more so a place for relationships.



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감추고 싶거나, 대면하고 싶지 않은 수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친구라는 집단 안에서 우정을 이러한 문제들을 탈출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이코스가 훌륭하다고 예전에도 지금도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오이코스는 사람들과 리더에게 표면에 나타나 있는 이상의 것을 보도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끄집어내도록, 서로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몇 달 간, 저는 오이코스의 자매들을 알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정말로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고, 안전하게 느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이코스 안에서 그냥 친구로서 뿐만 아니라 서로를 자매로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 것은 커다란 은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울음과 웃음을 함께 나누었고, 매일 서로를 위해 기도했고, 주님 안에서 자신을 찾고 하나님의 딸로 성장하도록 서로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우울증이 치료되도록 기도요청을 했던 젊은 자매가 생각납니다. 우리는 매주 뜨겁게 기도했고, 그 자매와 함께 감정의 기복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매의 어머니는 마침내 우울증에서 해방되어 승리했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매와 기뻐하며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오이코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오이코스 안에서 말씀과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시작하자, 이미 기반이 다져져 있었기 때문에 공부는 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몇 자매들이 리더가 되고자 나선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종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제가 지금도 계발 중인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오이코스 모임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은혜

It is a way for brothers and sisters to share their lives together. When I thought about it, I realized that there are so many things in our hearts that we like to keep hidden and do not deal with, and unfortunately, in the company of friends, we use friendships as a way to escape those problems. This is why I thought and still think that Oikos is so great because it gives the people and the leader the opportunity to really challenge one another to look beyond what's on the surface and draw out those things that are really preventing them from growing into a deeper relationship with God.

So initially for the first few months, I spent a lot of time getting to know the girls in my group because God showed me that people really need to trust one another and feel safe before they are willing to open up. It was such a blessing to see them begin to love each other as sisters and not just as friends because I knew that it was God's love in their hearts that was being poured out onto one another. We shared tears and laughter together, prayed for one another daily, and challenged one another to find our confidence in the Lord and grow to be strong women of God. I remember one young woman's prayer request for her mother to be healed of clinical depression. We prayed fervently week after week and experienced the emotional highs and lows with her. That was two years ago and today, her mom has been set free and claims victory over depression and we all rejoiced with her and praised God for being so faithful. As time progressed, our small group grew and developed perfectly according to His plan and established. And now, I see some of the girls stepping up to become leaders and I thank God for giving them a servant's heart.

God taught me many things which I am still developing. He taught me that prayer was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being a leader. On my own, I was not able to do anything, but with His guidance and Spirit being present during the sessions, people

를 받았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제가 오이코스를 섬기고 이끌어가면서 사람들을 향한 제 마음과 사역은 굉장히 성장했고,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것 때문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리더로서 저는 누구에게 공을 돌려야 하는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보여주시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리더들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람들은 성장하고 변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거나 믿음의 길 안에서 더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제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과 최고의 계획에 따라, 그들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또한 리더로서 약해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리더의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 위에 제가 있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했습니다. 리더로서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신용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제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고 저 자신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비슷한 문제로 고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저는 제 고민을 오이코스 사역을 하는 다른 학생 리더들과 나누었고, 지속적으로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저는 제 삶에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이코스의 상황과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항상 최근 소식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방심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혼자서 싸우는 것을 바라시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최근 저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제가 하나님과 가지는 개인적인 시간을 대신한다는 생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께

were touched and blessed. Also through prayer, He gives us the right heart: HIS heart. As I continued serving and leading small groups, my heart for the people and the ministry grew so much and I knew it wasn't because of anything within me that was "good." As leaders, I realized it was important to remember who takes credit. We love the people because


God enables and shows us how to love them. They grow and change because of His transforming power and grace, but because of our teaching. And with that, it was easy to be discouraged when people stopped showing up or didn't seem to grow in their faith walk, and many times I've felt like I was doing something wrong and was failing to do a good job. But God reminded me that He moves in our life according to His time and His sovereign plan.

I also learned to be vulnerable as a leader. Although I was in a position of a leader, I never thought I was above them in any way and I made sure people knew that. It's a hard balance because as a leader you want to portray that you are more mature in your faith and have some credibility, but at the same time, I found it really important that I humble myself before them and show them that I struggle with similar things and that I don't know everything. I also shared my struggles with other student leaders in the ministry and developed lasting friendships with them, and I am so grateful to God for bringing them into my life. We are always updating each other on how our Oikos is going and how we are doing individually and it has helped me stay on my toes. It reminds that God doesn't want us to "fight the good fight" on our own.


Lastly, I struggled a lot with thinking that my service to God substituted my personal time with



받아야만 제가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아야한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저는 일주일 후에 기독교상담학 석사과정을 밟기 위해 고든 콘웰 신학교로 떠납니다. 헬로쉽교회에서의 지난 4년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임팩트와 오이코스 사역을 통해 제 남은 일생 동안 이 일을 할 열정과 소망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얼마나 그들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는지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위에서 하시는 일과 제가 어떻게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런지 흥분됩니다. 저의 진실된 소망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찾으며, 귀중한 주님을 위해 살도록 돕는데 제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Him. He's really shown me that the only way I can give anything is if I am receiving from Him. He taught me find satisfaction in Him and not out of duty to do something for Him.

I leave for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in one week to work on getting my Masters in Christian Counseling, and as I reflect upon the past 4 years at NCFC, I know that because of my serving in Impact and Oikos, God gave me this passion and desire to do this for the rest of my life. I realized that God gave me a love for people and discovering how He uniquely created them. My heart gets excited at what He's doing around me and how I can participate in His work. My earnest desire is to be sued to help people fix their gaze on Christ in every aspect of their lives, to find true, everlasting joy in Him, and live for Him because He is worth it. 

진정한 오이코스의 주인

저의 테스트니 오이코스 사역은 원종호 집사님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신혼여행에서 일주일을 일찍 돌아왔을 때, 원 집사님이 저희에게 오셔서 오이코스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분과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원 집사님: 안녕하세요. 오이코스 리더로 섬기고 있는 원종호입니다. 이제 막 결혼하셨지요. 우리 오이코스에 소속되어 계시는데, 다음번 오이코스 모임에 참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시겠어요?

보다시피 대화라고 부르기도 힘든 대화였습니다. 매 주일마다 원 집사님은 저를 찾아서 저와 아내가 오는지 확인하셨습니다. 오이코스 모임을 나가던지 아니면 교회를 그만 나가던지, 양자택일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 집사님은 분명 왜 우리가 오이코스 모임에 나오지 않았는지 물어볼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원종호 집사님의 오이코스에 참석하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와이의 코나에 있는 YWAM(예수전도단)에서 사역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콕 Scott, Heather 집사님이 오이코스를 맡으셨습니

Seth Hammontree

My introduction to the Destiny Oikos ministry began with Deacon Chongho Won. My wife and I had just returned a week earlier from our honeymoon and he approached us about his Oikos group. The conversation went something like this:

Deacon Chongho: "Hi! My name is Chongho Won and I am a small group leader. I know you just got married but you are in our Oikos and I want you to be at our next Oikos meeting. What is your email and phone number?"

As you can see it was not much of a conversation!! Every Sunday until the meeting he would seek me out and make sure we were coming. It was either go to the Oikos meeting or not come to church because I know Deacon Chongho would find me and ask why I was not at their Oikos meeting!

Soon after we joined the group Deacon Chongho and his family answered a call from God to serve YWAM in Kona, Hawaii and Deacon

다. 우리 오이코스 인원이 두 배로 불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저희 부부는 오이코스 리더로서 사역을 시작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경봉 장로님과 곽 집사님은 우리 부부의 새 오이코스 식구들을 놓고 기도하셨고, 새 오이코스에서 저희 부부를 도와주실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천 형제, 자매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오이코스에서 제일 어리고, 결혼 연륜도 제일 짧은 저희가 오이코스 리더가 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리더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은 커져만 갔고, 원 집사님과 곽 집사님이 세워놓은 리더의 기준에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분들은 제가 어떻게 오이코스를 이끌어가야 하는지 모델이 되십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오이코스 사역을 계속하고 있을 때, 김 기호 집사님께서 제가 오이코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오이코스가 신실하고 성숙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때 제 오이코스 사역의 토대가 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이코스 멤버들이 신실한 것은 리더가 신실해서이지.” 김 집사님이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알았지만, 저는 이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제일 지혜롭고 최고인 오이코스 리더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부르심에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따르기만을 원하신 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 적은 것은 그 분들에게 경의를 표할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격려가 되었으면 해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역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믿음 안에서 함께 걸어가며, 우리를 격려하고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이코스의 인원이 다시 두 배로 늘어난 지금, 저는 우리 오이코스 식구들이 지난 3년간 지나왔던 모든 일들을 되돌아봅니다. 아주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헬로쉽교회에 나오지는 않는 세 쌍의 부부와 돈독한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그리울 것입니다. 데이빗과 애슐리가 오이코스 리더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Scott and Heather Kwak took over our Oikos group. Not long after that our group multiplied and we were challenged to begin our ministry as Oikos leaders.

Elder Neil and Deacon Scott prayed about who would be in our new Oikos and set us up for success by providing us a group of mature Christians that would support us in our first Oikos. As I look back I really did not know what I was doing. I was the youngest and we were the most newlywed couple in our group. As we progressed I had an increasing feeling of inadequacy and I was struggling with how I would live up to the standards set by Deacon Chongho and Deacon Scott. They served then and continue to serve as models for how I lead Oikos.

As I continued with these thoughts in the ministry, Deacon Ki Kim asked me how I was doing with Oikos. I told him how faithful and mature our group was. He told me something that has served as a cornerstone in my Oikos ministry. He said "they are only as faithful as their leader." I know he meant it as encouragement but I also took it as a challenge. As I thought about this, God reminded me that He had not called me to be the wisest and best Oikos leader. He had only called me to be faithful and steadfast to the call He placed in my life.


There are many people mentioned here not to give them honor but to serve as an encouragement to everyone. None of us are in this journey alone. There are brothers and sisters who are mature in the faith that God will use to encourage and strengthen us as we walk together in faith.

As we begin to multiply once again I look back on all that our group has gone through in three years and it was a very difficult decision to make. We have built strong relationships with 3 couples that do not attend our church and we will miss them tremendously. We have seen David and Ashley Rhee grow from faithful Oikos members to

위해 신실한 오이코스 멤버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동안 6명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세 쌍의 부부가 함께 갓난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지켜 보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자람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다섯 쌍의 부부가 오이코스에서 들어왔고 한 부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의 소명을 받고 떠납니다. 우리 오이코스에서는 물론교인을 초대해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또 다른 간증거리입니다.)

우리 오이코스는 영적 싸움, 가까운 가족의 죽음, 불임, 유산 등 삶의 어두운 순간들에 서로를 위해 함께 있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오이코스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기쁨, 고통 위에 함께 쌓아온 우정과 관계를 떠나보내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오이코스 리더로서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해온 오이코스 식구들을 떠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되돌아보면, 우리 오이코스 안에 계신 주님의 손길을 분명히 봅니다. 우리가 해온 그 어떤 것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오이코스의 주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오이코스가 두 배로 불어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오이코스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견디기 힘들 정도로 떠나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 오이코스 인원이 늘어난 것을 보는 것은 헬로쉽교회 오이코스 사역을 성장시키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작은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은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사는 기본 원칙을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께서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지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instruments to be used by God as Oikos leaders. I cannot tell you what an honor and how proud we were to see 3 of our Oikos members dedicate their infants on the same Sunday.


We have added 5 couples and have been a part of a couple leaving because they answered a call to leave all they have to become missionaries. We even had the honor of bringing some Mormon's into our Oikos group witnessing to them (another story for another time)!!

We have also been there for each other during spiritual struggles, death of immediate family members, infertility, and miscarriages - some of life's darker moments.

But as look back on these experiences we can only praise our Lord for His grace upon our group. It is so hard to let go of all of the camaraderie and relationships built upon the joy and suffering we have shared. And it is difficult to leave the group we have come to love, trust and respect not as Oikos leader to Oikos members but as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Not by anything we had done but because God was the author of our Oikos group.

So as we multiply and take on new challenges I cannot wait to see what God will do in our new Oikos group! It is still tremendously difficult to leave but to see us multiply is to see the hand of God moving and growing NCFC's Oikos ministry. And to be just a small part of the movement of

God is an honor and privilege.

We will continue to apply the basic principal of being obedient and faithful to His calling. As we have seen Him move so mightily before we wait with great anticipation for what He will do next! 



(MD 캠퍼스, 9월 23일)

제 58차 새가족반



(위줄 왼쪽부터) 이인영목사, 이대훈 장로, 양윤호, 장수형, 안창환, 신용진, 김기현, 노준석, 최병성, 장승민 목사, 황일하 목사
(가운데줄 왼쪽부터) 정평희 장로, 유영길, 노영경, 장지원, 김형미, 함원희, 김미현, 최혜순, 정대영 장로, 이마리아 사모
(아래줄 왼쪽부터) 김명래, 양하영, 한지희, 신영기, 김원기 목사, 김혜정 사모, 백형희, 장미진, 황혜자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노영경

좁은 골목, 요구르트, 초코파이, 조그만 연필통...이것들은 제가 처음 교회라는 곳을 찾아갔을 때 처음 접했던 것들입니다.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혼자 찾아갔던 것은 아마 일곱, 여덟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그당시 무신자였고, 교회라는 것을 접할 기회도 없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혼자서 반지하에 자리잡고 있던 교회를 찾아갔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매주 저를 기쁘게 반겨주시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좋았고, 달콤 쌉사름했던 요구르트가 반가웠고, 투박한 모양의 연필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다기 보다는 아마 교회 가면 받는 선물들이 좋아서 그렇게 신나게 교회를 다녔던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번째 교회는 얼마 동안 다니다가 이사를 하는 바람에 끊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그냥 조용하고 평범한 아이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는 중학생이 되었고, 그 교회에서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중학교 2학년 여름에 처음으로 간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의심도 들고, 이해가 안 간다며 조금 힘들어



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주위의 친구들과는 달리, 저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읽는대로, 듣는대로 다 마음에 와닿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냥 너무 쉽게 믿어졌습니다.

저는 수련회를 다녀온 후 매일 밤, 낮으로 성경을 읽으며 주님과 많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에 나오는 장면을 영화처럼 상상해가며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 가서는 안믿는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며, 너를 위해 왜 돌아가셨는지 침을 튀기면서 열변했고, 반 아이들 중에 행여 불교신자라도 있으며 냅다 달려가 그 아이에게 우상숭배는 죄악이니 어서 속히 주님께 돌아오라고 다짜고짜 소리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저희 학교 아이들이 “영경이 앞에서는 종교 얘기 하지마... 재... 무서워...” 하며 슬슬 피해다니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





린 마음에 그렇게 다짜고짜 무조건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소리치고 다녔던 것이 너무 마음만 앞선 행동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때는 정말 한사람에게라도 더 예수님을 알려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예수님을 정말 쉽게 순순히 만났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믿음을 지키기까지 저를 위해 준비하셨던 주님의 연단을 견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4년차이가 납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언니는 벌써 고등학생이었는데 언니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 아무 상관 안 하시던 제 아버지가 어느날부터인가 제가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언니는 주일날 아침에 하던 대로 준비하고 예배를 가는데 아버지가 유독 문앞에 앉아 지키고 계시면서 저는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는 더욱 난폭해지기 시작하셨고, 교회에 다녀오면 으레 맞는 것이 일어났

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집사님으로 예수님을 잘 섬기고 계시지만(언니와 저의 기도가 10년만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만해도 저희 부모님은 무신자였고, 특히 아버지는 교회에 대한 선입견과 불만,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켜켜이 있어서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사시고 계셨습니다.

수련회에 가기 위해서, 성가대 대원으로 서기 위해서, 찬양선교단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 저는 그때마다 무릎꿇고 아버지에게 빌며 허락을 구하고 매일 밤, 낮을 울며 기도하며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아버지가 한없이 무서웠지만, 그렇게 강압하시며 교회를 못 나가게 하실 때 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한번은 주님께 제가 원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해주셔서 저를 만나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맞을 때, 밤새워 괴로워할 때, 주님은 도대체 왜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말입니



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울 때 나는 네 곁에서 너와 함께 울었고, 네가 맞을 때 나도 너와 함께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시는 주님 앞에 저는 다시 한번 제 모든 삶을 내어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후로 매년 수련회를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반대를 무릎쓰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교회 일들을 더욱 열심을 내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지금의 제 믿음의 기초는 모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강건하게 세워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또다른 십여년이 지난 지금, 제가 가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주님과 관계가 소원해질때면, 주님은 어린날 주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때의 그 마음을 잊지마라’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저의 작은 기도 소리,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까지 모두 알고 계셨음을 매일 저

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오히려 너무 평안하고 자유스러움이 저에게 안일한 일상이 되어 다가오는 때가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몇년 동안 온통 눈물과 기도문으로 범벅이된 낡은 일기장을 들춰보게 하십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너무 자유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지켜야한다는 새로운 도전으로 저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그런 주님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한번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주님, 지금도 매일 저에게 “사랑한다...사랑한다...” 속삭이시는 주님께 저는 제 모든 것을 드립니다. 🙏



성소로부터 흐르는 강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그 분은 흐르는 강처럼 내 속 구석구석을 먼저 채우시고 내 밖으로 흘러 넘쳐 내 주변을 적셔가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셨다. 나는 비로서 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언급할 때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그토록 강조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사역과 가정 중에서 무엇을 우선시킬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이나 혹은 하나를 위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식의 취사선택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강은 반드시 흘러간다는 지극히 당연한 당위성에 관한 것이었다.



장승민 목사

“아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은 뭐예요.” 구수한 김치찌개에 저녁밥을 맛있게 먹던 큰 아들의 질문은 나를 순간적으로 당황케 만들었다.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던 질문이었다. 나는 얼른 성령님께 여쭙었다. “성령님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성령님은 재미있는 답변을 주셨다. “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이런 거 좋아하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좋아하시는 분이시거든. 죄만

빼고.”

아이들은 시공을 초월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질문하는 재주가 있다. 아이들은 설새없이 질문을 던진다. 나의 아이들도 그렇다. 하나님에 대해 묻는 아이들의 눈은 늘 반짝인다. 나는 이런 아이들의 눈을 사랑한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질문 속에 뛰어들어가 성령님께 묻고 답하며 함께 배운다. 솔직히 나는 그 속에서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를 돌보라고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 이토록 복되구나 깨닫게 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두 아들에게 얼마든지 성경을 인용해가면서 신학적으로 다르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친밀한 분이신지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질문할 때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한다. 내 안에 계신 그 분은 이런 우리 가족의 모습을 즐거워하신다. 그 분은 때로는 기발한 유머로, 때로는 가슴을 울리며 답변해주신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게 되면서 그렇지 못했던 예전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많이 달라진 것 중 하나는 그 분이 너무나 친밀하게 여겨진다는 점이다.

필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해 나누면서 그 분께서 우리 안에 동거하시는 것과 우리가 그 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여러 번 강조해왔다. 지구상에서 이 동거와 동행의 관계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딜까. 두 말 할 것도 없이 가정이다. 우리는 가족과 동거한다. 하지만 동거한다고 해서 다 같은 동거가 아니다. 한 지붕 아래에 살면서도 별거하는 것처럼 지내는 차가운 가정이 얼마나 많은가.

가족 간의 단절은 부모의 무관심 때문에 시작되기도 하지만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의 역할에 몰두하다 보면 주변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하루를 보내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일에 열중한 사람들일 수록 오히려 가족과 인격적인 교류를 갖지 못한 채, 몸은 동거하면서도 마음은 별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부끄럽게도 이 글을 쓰는 나의 가정 역시 그랬던 적이 있다.

해야 할 일의 양과 인격적인 교류간에 나타나는 이런 반비례 현상으로 인하여 나와 가족 간의 단절

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처한 적이 있다. 결코 원했던 바는 아니었지만 사역이 커갈수록 문득 가족과 떨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분주하게 사역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아빠를 기다리다 지쳐 벌써 잠들어 있었다. 집안이 주는 안도감 때문에 나도 곧 잠이 들었고 아내와 대화를 나눌 겨를이 없었다. 새벽기도를 위해 다시 나갔다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비로소 내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물었다. “왜 아빠는 아침에만 들어왔다가 아침에 나가요.” 아이들은 저녁에 들어오는 나를 거의 보지 못했고, 새벽기도 후 들어왔다 아침 식사 후 나가는 아빠 만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던 것이다.

나의 가족이 행복하지 않다는, 믿겨지지 않은 사실을 깨닫게 해 준 사람은 다름아닌 아내였다. 아내는 밤늦게 돌아온 내 앞에서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처해있음을 눈물로 호소했다. 나는 일면 화가 났다. 목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가 답답해 보였다. 아내가 나만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하지만 그보다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내 안에 명백히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에 대한 답답함이었다. ‘왜 나는 실제적인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은 전혀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왜 행복하지 않을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것일까’ 이 점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성령님께 물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왜 저와 아내와 아이들 안에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거하고 계실텐데 우리 가정이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성경의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에스겔서 47장을 통해 나의 질문에 답해주셨다. 어느 날 에스겔은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의 장엄한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 물은 성소로부터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그것은 강이라고 부르기에 너무나 하찮은 출발이었다. 하지만 그 강은 흐르면서 넓혀졌고 깊어졌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차 올라 마침내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며 흘러갔다. 그 강이 흘러가는 좌우편 기슭에는 각종 탐스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혔다. 그 강은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그 분은 흐르는

강처럼 내 속 구석구석을 먼저 채우시고 내 밖으로 흘러 넘쳐 내 주변을 적셔가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셨다. 나는 비로서 왜 사도 바울이 성령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언급할 때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그토록 강조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사역과 가정 중에서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이나 혹은 하나를 위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식의 취사선택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강은 반드시 흘러간다는 지극히 당연한 당위성에 관한 것이었다.

성령님은 내 가정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조명 해주셨다. 아내는 나를 존경했지만 나를 친밀하게 여기지 않았다. 아이들 역시 그랬고 그들의 어리숙한 행동이 내 눈에 비칠 때마다 어쩌면 저렇게 내 부족한 모습만 닮았을까 싶어 괴로웠다. 나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했다. “이것은 제가 원하는 삶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도 아닙니다.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께서 저의 가정을 가득 적셔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저의 가정을 웃음꽃이 가득하고 함께 춤추며 노래하는 곳으로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요즘 나는 감사가 넘친다. 왜냐하면 내 가족에게 성령님께서 흘러가시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아내는 좋아지고 있다.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침을 튀기며 말할 때는 듣고 흘려버리던 아내가 요즘은 하나씩 하나씩 누리며 즐거워한다. 나는 매일 나보다 먼저 또는 나보다 오랫동안 말씀 앞에 조아리는 아내를 보게 된다. 아이들도 좋아지고 있다. 아이들은 아빠인 나를 친구처럼 좋아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나와 함께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책도 읽고 게임도 한다. 나는 종종 두 아들의 잠자리를 봐주고 그 가운데 들어 눕는다. 그리고 두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찬양을 부른다. 그리고 함께 기도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 잘하는 것도 없는 우리 가족을 사랑해주는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 때문에...

내 가족은 여전히 허점 투성이다. 하지만 내가 감사한 것은 가족이 나와 친밀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내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예전보다 더 친밀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의 영적 모델이 되도록 하셨다. 부모된 우리가 매일 완벽한 헌신 속에서 살아갈 수

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건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면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른 경건이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이다.

죄에게는 분리시키는 능력이 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됨으로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듯이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는 영적 사망을 낳는다. 죄는 모든 영역에서 예외 없이 단절을 가져오고 그 단절은 결국 파산을 초래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끊어진 그 분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다시 이어 놓으셨다. 연결에 필요한 모든 대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양이 흘리신 피로 완전히 지불되었다. 성령님은 그 길을 따라 우리 안에 찾아오셨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충만하신 생명을 강같이 자녀들에게 흘러 보내고 계신다.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서 먼저 역사하신다. 그분의 역사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미하게 시작되지만 점점 분명해지며 점점 강력해진다. 강물이 채우며 차오르듯이 그 분은 유유히 그러나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신다. 그분의 충만은 우리 안에만 고이지 않는다. 이제 밖으로 넘실거린다. 넘실거리는 그 생명의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가득히 맺힌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어떤가. 당신은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그럼 나는 당신에게 또 한번 묻고 싶다. 당신은 좋은 아빠인가. 당신은 좋은 엄마인가.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은 생수의 강처럼 흘러 당신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적시고 계시는가. 성령님은 진심으로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

“그 천사는 또 내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 나와 그 성의 거리 중앙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생명 나무가 있어서 일 년에 열 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과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앞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습니다.”(계 22:1-2 현대인의 성경) 

10월의 추천도서



추천도서 I

함께 승리하는 신뢰의 법칙

저자: 존 맥스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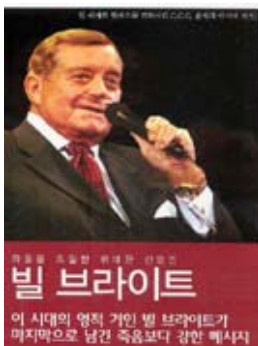
책소개

존 맥스웰이 말하는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25개의 원칙
존 맥스웰은 목사이면서도 동시에 미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리더십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그는 목사라는 직업에 맞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그러는 가운데 인간관계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경험했다. 기존의 인간관계 관련 자기계발서들이 상대방을 설득하고 내 사람으로 만드는 기술과 요령에 쏠려 있는데 비해 《신뢰의 법칙》은 인간이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를 택한다면 그것은 리더십도, 실체적 가치도, 파트너십도 아닌 바로 '신뢰'다. 《신뢰의 법칙》은 동료와 원만하지 못한 관계로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자신의 존재가치를 못 찾아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평생을 함께 할 진정한 친구를 찾고 싶을 때 인간관계의 기본이 무엇인지 마음 속 깊이 새겨준다.

추천도서 II

죽음을 초월한 위대한 신앙인 빌 브라이트

저자: 빌 브라이트
옮긴이: 이명숙



책소개

죽음을 앞둔 빌 브라이트가 산소 호흡기를 의지한 채 힘겹게 써내려 간 주옥같은 메시지! 우리가 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떻게 꿈을 꾸고,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이다. 화려한 삶을 통해 감동을 줄 수 있다. 빛나는 말을 통해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힘 있는 것은 죽음을 통한 감동이다. 빌 브라이트가 죽음을 앞두고 보낸 마지막 몇 달은, 그의 모든 사역보다도 더 빛나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그는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삶과 사역이 얼마나 진실된 것이었는지를 증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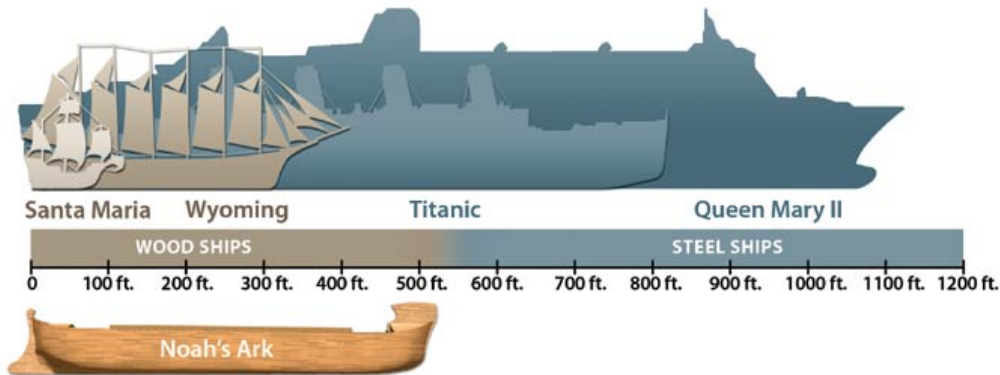
작가 소개

빌 브라이트 1951년, 빌 브라이트는 대학생선교회(C.C.C.)를 설립하였다. 빌과 그의 아내 보넷은 이 사역을 위해 천 명의 간사들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는 응답되었다. 그리고 다시 만 명의 간사들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것마저 응답되었을 때는 백만 명을 놓고 기도했다. 현재까지 수 백만 명의 평신도들이 이 C.C.C.를 통해 훈련되었으며, 약 소십만 명의 간사들이 사역자로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

동물들이 노아에게 나아 왔다

오장석

지난 시간에 (2007년 7월호) 우리는 노아의 방주가 그림책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작은 규모의 배가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성경은 방주의 세 층을 하나로 펼쳐놓으면 현대 축구 경기장의 1.5배에 달할 정도로 크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성경은 새와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각기 ‘종류대로’ 그 생명을 보존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현재의 종의 개념이 아닌, 과거에 교배 가능한 단위로 이해하면 방주에 들어갈 동물들의 전체적인 수 역시 현저하게 줄어든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크기는 그 모든 동물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크기였음을 함께 나누었다.



노아의 방주 상대적 크기 비교

‘비록 방주가 것처럼 커다란 규모였음을 인정하여도, 그 배를 채울 많은 동물들을 어찌 노아와 세 아들이 다 모아들일 수 있었을까?’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다보면 흔히 접하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이다. 특히나 방주의 목적이 씨를 보존하게 한다는 점에서, 노아가 동물에 대한 전문가도 아닐 터인데 어떤 동물들을 잡아들여야 하는 지 알 수 있었던 말인가? 가축이나 땅에 기는 동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많은 새들은 또 어찌 잡았던 말인가? 질문은 꼬리를 물고 늘어만 간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이 점에 대해 무어라 말하는지 주목해야 한다.

“노아가 아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창 8:7-9)

성경은 노아가 동물채집에 나서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오히려 동물들이 노아 앞으로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말로 씨를 보존하기 위해 어떤 동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아시지 않겠는가? 보통, 동물들은 커다란 자연재해를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 동물들은 미리 파악하고 그 지역을 벗어난다. 노아의 홍수 또한 엄청난 지각변동을 동반한 사건이었기에 동물들이 미리 감지했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중 선택된 동물들만 노아 앞으로 나아왔다. 아니 어찌 그런 일이? 그것은 설명되어질 수 없다. 씨를 보존하기 위해 가장 좋은 유전자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있었고, 그 결과 동물들이 노아 앞에 나올 수 있었다. 그렇다,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사항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하심만으로도 웬지 석연하지 않은 구석이 있다. 그렇다면 캥거루는 호주에서부터 바다를 한 번에 뛰어넘어 왔다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위해 따로 배를 만드셨을까?

우리는 보통 현재 살고 있는 대륙의 모습이 처음부터 계속 이어져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노아의 홍수를 생각함에 있어서도 지금의 모습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지금과 다를 수도 있다. 근거가 있는가?

먼저, 성경을 살펴보자. 창세기 1장 9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간 셋째 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고 하셨다. 즉, 셋째 날에는 지금과 같은 5대양 6대륙이 아닌, 하나의

육지와 하나의 바다가 있었던 셈이다.



지판들을 짜맞추었을 때 예상되는 초대륙인 ‘판게아’의 상상도. 판게아의 개념은 처음, 프랑스 창조과학자이며 지질학자인 ‘안토니아 스나이더(Antonio Snider)’에 의해 1859년에 제안되었다. 그는 창세가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판게아 이론을 이끌어내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

지금의 대륙을 놓고 퍼즐을 맞추듯 재배열하면 실제로 하나의 대륙으로 합쳐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과 아프리카 대륙 서쪽은 원래 붙어 있었는데 언젠가 떨어져 지금의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져 있는 것이다. 이는 양쪽 대륙의 해안선이 잘 맞아 떨어지는 점으로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대륙들이(보다 정확한 용어로 지판들이) 움직였다는 증거 중 하나로 서로 맞물리는 대륙 간에 나타나는 화석들의 분포가 동일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창조과학자나 일반 지질학자들 모두 지판이 서로 움직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커다란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단지 지판들의 움직이

는 속도가 빨랐는지, 느렸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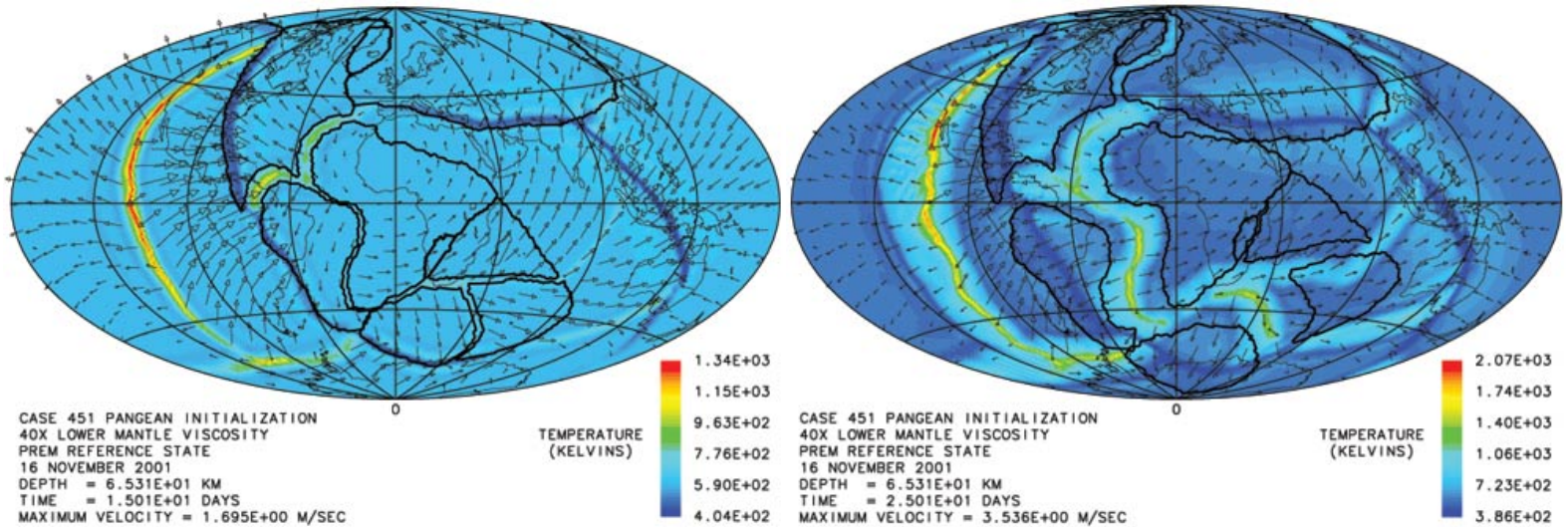
오늘날 이 지판들은 매년 2-15cm씩 매우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 지질학자들은 진화론에 입각하여 동일한 속도를 적용하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서양이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억년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창조과학자들은 지판이 과거 어느 순간 매우 빠르게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언제일까? 바로 노아의 홍수 때이다. 즉, 노아 홍수의 시작인 모든 깊음의 샘들이 터질 때 (창 7:11), 지각에 균열이 일어나 지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본다.

지판들이 과거에도 오늘날과 같이 느린 속도로 움직였다는 이론에는 많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습곡’의 문제이다. 지판들이 움직이면서 어떤 부분은 서로 벌어지지만, 또 어떤 부분은 부딪혀 수평적인 압력을 받아 휘어진 ‘습곡’을 형성한다. 그런데 이 습곡은 단단하게 굳어진 지층에서는 도저히 생겨날 수 없다. 왜냐하면 단단하게 굳어지면 휘어지지 않고 부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습곡은 물속에서와 같이 부드러운 상태에서 압력을 받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늘날 많은 산맥들이 이러한 습곡을 보여주는데, 이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듯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상태로 남아 있는 동안 지판의 빠른 이동으로 압력을 받아 짧은 시간에 형성된 것이다. 즉, 시간이 아니라 사건이다!



지층이 서로 밀리는 샌 아드레아스 단층 지역에서 지판이 서로 부딪히며 형성된 습곡.



‘존 바움가드너’의 3차원 슈퍼컴퓨터 모델. 지판이 움직이기 시작한 후 15일의 모습(왼쪽)과 25일의 모습(오른쪽). 과거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지판이 느리게 움직인다는 일반적인 가정과 달리 지판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최근 들어, 판구조학(지판의 움직임 연구하는 학문)의 전문가이자 창조과학 지질학자인 ‘존 바움가드너 (John Baumgardner)’는 3차원의 슈퍼컴퓨터 모델을 이용하여 지판들이 격변적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지판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모델이 여전히 새로운 개념이지만 (100년이 넘는 진화론에 비하면), 지난 20년간 많은 일반 지질학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확인되어지고 검증되어져 왔다. 더 나아가서, 3차원 슈퍼컴퓨터 모델 시도는 중력의 잠재 에너지, 맨틀의 점성과 대류, 자기장의 빠른 역전 등을 종합한 세계 최고의 판구조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다시 캥거루 이야기로 돌아가자.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지금과 같은 6개로 이루어진 대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대륙이었다. 따라서 캥거루가 방주로 오기 위해 호주에서부터 바다를 건너야 할 이유가 없었다. 비단 캥거루 뿐만 아니라, 어느 특정 대륙에 서식하는 동물일지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달아 넣으시니라” (창 7:16)

하나님의 간섭하심 아래 모든 동물들이 방주 안


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칠 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창 7:9-10)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간 후, 칠 일이 지나서 홍수가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언제 닫으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기에 그 시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칠 일을 기다리셨던 것일까? 모두 방주로 들어가자마자 방주의 문을 닫았다면 굳이 칠 일을 더 기다려 비를 내리실 이유가 있었을까? 그렇다면 모두 방주에 들어간 후 바로 방주의 문을 닫지 않고 일주일 더 기다려주셨던 것은 아닐까? 혹시 한 영혼이라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피조물을 심판하시는 순간에도 자비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엿보게 된다. 사실 그 오래 참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종말이 어디에 있는지 조롱삼아 이야기한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일주일 이 지난 후 방주의 문은 닫히고, 결국 비가 내렸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다가온다고. 

훈육하라 사랑하라 XVI

<언제나 자녀를 믿으라>

신율미

지난호까지 자녀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길로써, 자존감의 세 가지 영역인 소속감, 자신감, 자기 인식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자존감을 심어주는 길의 마지막으로 언제나 자녀를 믿으라는 것에 대해 공부합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당신을 가장 믿어주고 격려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가 당신을 격려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당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그가 어떻게 보여주었는지 서술해봅시다. 그 사람은 당신의 일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가장 믿어주고 격려했던 사람은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항상 제가 잘 하고 있고, 자랑스럽다고 하였고, 앞으로도 잘 할 것을 믿는다며 제 눈을 들여다보시며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셨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하고 믿어주면 비록 상황은 어렵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의 잠재력을 신뢰해주면 나는 나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I. 참 사랑의 네 가지 특성

성경은 고린도전서 13:7에서 참사랑에는 네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값이 어떠하든지 그에게 충실할 것이다. 언제나 그를 믿을 것이며 언제나 그의 최선을 기대하고 그를 옹호하기 위해 그의 편에 설 것이다.” [The Living Bible]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현대인]

자녀를 사랑한다 함은 이 모든 네 가지 특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당신의 자녀에게 신실하십시오.

✦ 언제나 그를 믿으십시오.

✦ 언제나 그의 최선을 기대하십시오.

✦ 당신의 사랑이 어떤 단련을 받더라도 항상 꾸준하십시오.

당신이 이 네 가지 사랑의 특성을 실천해나갈 때 그것이 당신의 자녀안에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발전시켜나가는 기초가 됩니다.

1. 자녀에 대해 언제나 인내로 견뎌주고 그에게 신실하라

고린도전서 13:7 전반부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는다(bear)는 것은 인내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변함없이 신실한 것을 뜻합니다.

아이가 갓난 아이에서 사춘기로 자라기까지 부모인 우리로서는 인내를 갖고 참고 아이에게 신실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각 시기마다 아이들은 다양한 발달과정을 밟게 되고 그 중 어떤 시기는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 참을 때 그 값지불이 어떠하든지 아이들을 신실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상관이나 목사님이 당신 집을 방문했을 때 당신의 아이가 당신을 당혹케 하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이 아이에게 충실하다면 아이를 우습게 만들면서까지 당신의 품위를 지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아이의 명예를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은 (1)사랑스럽게 주의를 줄 수도 있고 (2)은밀한 곳으로 데려가 야단을 칠 수도 있고 (3)그 문제를 덮어줬다가 후

에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훈육의 원칙을 알고 그 방법을 활용하는 법을 이해하고 아이의 성장단계를 이해하면 아이의 행동을 인내로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사랑어린 훈육을 필요로 하는 것과 그 상황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언제나 자녀를 신임하고 믿어주라

자녀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한 우리의 태도나 행동에 기초가 되는 것은 아이의 최선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아이를 **믿는 것**은 그에게 신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성장 수준 안에서 바르게 행할 것을 믿어주며 자기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대할 때 아이는 스스로를 믿을 힘을 얻게 됩니다. 당신이 그를 믿는다는 것과 그의 의도가 긍정적임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세요.

신뢰받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낙담되는 일입니다. 당신이 자녀를 언제나 불신과 미덥지 않은 태도로 대하게 되면 아이는 낙담이 되어 당신이 불안해하는 만큼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악담은 낙담케 하고 품위를 떨어뜨리고 한 영혼을 죽이고 맙니다.

아이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그 아이의 약점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이의 성장 정도나 약점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아이가 다를 수 없는 상황에 순진하게 그를 집어넣지 마십시오.

다음의 표현들은 아이에 대한 신뢰를 말해줍니다.

“You will make it!” (너는 해낼 수 있을거야)

“It won’t be easy, but we can work through this.”(그것 쉽지 않겠는걸. 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을거야)

“I know you are struggling with that problem, but you can overcome it.”(네가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것을 알고 있단다. 하지만 너는 꼭

해낼 수 있을거야)

반대로 다음의 표현들은 불신을 나타냅니다.

“I’ll never trust you again.”(나는 다시는 너를 믿지 않을게다.)

“When will you ever stop that behavior?”(너는 언제쯤이나 그런 행동을 그만 둘 작정이니?)

“You’ll never change.”(“너는 언제고 바뀌지 않을거다.)

3. 언제나 아이의 최선을 기대하라

“모든 것을 바란다”[고전13:7]는 것은 신념을 갖고 기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믿으면 당신은 그의 최선을 기대하게 됩니다. 당신의 자녀가 일상적인 상황에 접할 때 그의 최선을 기대하십시오. 물론 그는 항상 최선을 다하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언제나 그렇게 되길 기대하십시오. 자녀의 마음 속의 의도를 의심하는 대신에 소망을 갖고 대하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4. 고된 시련의 순간에도 당신 자녀에 대해 오래 참으라

고린도전서13:7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모든 것을 ‘참는’ 것과 비슷한 의미이지만 더욱 강한 용어로서 인내를 갖고 견딤으로 시험과 연단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고 있음을 뜻합니다.

만 2세 정도의 아이는 한참 강한 의지를 행사함으로써 엄마를 좌절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따금 그 조그만 아이에게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것에 의아해 할 정도입니다. 또 초등학교나 사춘기 시절에는 부모와의 관계에 심한 시련의 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몇 살이든, 그의 행동이 얼마나 지독하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든 관계없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모든 시험과 연단 속에서도 그에 대한 충성에 흔들림

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II. 실제적인 적용: 자녀에 대한 사랑을 공고히 함

-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좌절되고 견디기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 양육하는 과정에서 당신을 좌절케 한 또다른 문제나 경험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이러한 사랑은 초자연적 사랑으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부모로서 당신은 끊임없이 인내할 기력이 당신에게 없음을 실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에게 그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분께서 사랑을 주시되 당신 스스로는 도저히 끝까지 견딜 수 없을 만큼 좌절된 상황에서도 그 힘든 시기를 극복할 사랑을 주실 것

입니다. 당신이 자녀를 가장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서약을 점검하면서 당신의 헌신을 재확인하십시오. 어느 항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빈 칸으로 남겨놓고 당신이 긍정적인 서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당신의 일생 동안 당신을 사랑으로 믿고 격려해준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의 기도문을 적어보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도 다른 사람들의 생애에 있어서, 특히 당신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다음호는 약 1년 반 동안에 걸쳐 다루어온 자녀 교육 시리즈의 대단원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정리하고 자녀 교육 시리즈를 마칩니다. 

나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 신뢰의 서약

날짜: _____

	자 녀 이 름			
1. 나는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이 아이에게 신실하겠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나는 나 자신의 명예에 앞서 아이의 명예를 지키겠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그의 행동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나는 그 곁에 있을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나는 그의 절망적인 행동을 다룰 긍정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가겠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나는 언제나 이 아이의 최선을 기대할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나는 이 아이가 내게 지우게 될 어떤 시련이나 부담도 인내로써 견뎌내겠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나는 시련이 갈수록 심해가고 오래 지속되더라도 이 아이와 함께 이겨낼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그에게서 약점을 보게 되면 그 약점을 다루기 위해 적당한 한계를 정하되 그 외에는 그를 신뢰하겠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회행사

■ 10월 4일(목)-6일(토)

가을 부흥회 (VA)

■ 10월 9일(화)

성경대학 개강 (VA): 역사서

■ 10월 14일(일)

공동의회 (MD/VA)

■ 10월 19일(금)-20일(토)

중고등부 여학생 Lock-in (MD/VA)

■ 10월 28일(일)

새가족 환영회 (VA) / 세례식 (MD)

■ 10월 31일(수)

가을축제 (MD/VA)



제58차 새가족반에서 온몸으로 환영하고 있는 모습.



헬로쉽의 어느 날

■ 새 회계연도를 맞아 긴축재정을 펼치겠다는 교회의 방침이 있었다. 그에따라 오이코스별로 선교사 후원한다는 말씀과 가정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기념하여 주일 도넛을 후원한다는 광고를 듣고, 건물관리를 담당하는 전원철 집사가 하는 말:

“겨울에 눈이 올 경우, 각 가정에서는 차량 1대당 소금 한 통씩을 가져와 자동차 주위에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대일 경우 두 통이 필요합니다.”

■ 영어회중 사무를 담당하는 이 미셸이 몸이 아파 교회를 나오지 못했다. 김정분 권사가 걱정이 되어 전화를 하니 남편이 받았다.

“미셸이 많이 아픈가본데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주무셔서 전화 못 받는데요.”

발행인 : 김원기

편집위원 : 오장석, 이연일, 오진이
지용한, 복진웅, 이창환
안선희

인쇄 : KOREA Monitor

Washington

New Covenant

Fellowship Church



Non Profit Org
U.S. Postage
Paid
Suburban Md
Permit No 3035

MD Campus: 18901 Waring Station Rd., Germantown, MD. 20874 (301) 444-3100 Fax (301) 444-3115

VA Campus: 1439 Shepard Dr. Sterling, VA. 20164 (703) 444.5634 Fax (703) 444.0567 <http://www.fellowshipusa.com>